

게임 속 특별한 '화이트데이'

레이븐, 화이트데이 사탕조각 수집 이벤트... 탈리온·드래곤블레이즈·피싱마스터, 사탕 등 아이템 선물

게임사들이 화이트데이 기념 이벤트 준비에 분주하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연인들이 사랑이나 선물을 주며 사랑을 확인하는 기념일이다.

게임업계는 특별한 기념일마다 게임 속 이벤트를 통해 유저들에게 독특한 미션 수행과 아이템을 제공하는 색다른 재미를 기획한다.

올해 화이트데이에도 넷마블, 게임빌 등 게임사들이 게이머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레이븐, 화이트데이 사탕조각 수집 이벤트 넷마블은 모바일 액션 RPG '레이븐'에 화이트데이 사탕조각 수집 이벤트를 실시한다.

화이트데이 사탕조각은 탐험 모드 10회 플레이, 차원의 균열 극악 난이도 2회 클리어, 비탄의 신전 이벤트 던전 2회 클리어 등 업적 달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획득한 화이트데이 사탕 조각 3종을 사용해 화이트데이 유물로 교환할 수 있다. 화이트데이 유물을 통해 궁극, 레어, 전설 등급의 각종 스킨 뿐만 아니라 레이븐 천사 각성석, 레이븐 악마 각성석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비탄의 신전에는 이벤트 강림 보스 '벚꽃 여인'이 새롭게 추가됐다. 벚꽃 여인 던전에서 단전 클리어와 특수 임무 클리어 보상으로 최소 영웅 등급 이상의 톤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레이븐은 현재 4주년 이벤트를 앞두고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은 4주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크리스탈, 각성석, 탐험의비약, 강화석 선택권 등 역대급 혜택으로 구성된 4주년 패키지를 증정한다.

▷탈리온·드래곤블레이즈·피싱마스터, 화이트데이 선물

게임빌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자사 글로벌 히트작 3종으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근 러시아 지역에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글로벌 MMORPG 대작 '탈리온(TALION)'을 비롯해 스테디셀러 '드래곤 블레이즈(Dragon Blaze)', '피싱마스터(Fishing Superstars)' 3종이 출동한다.

탈리온은 화이트데이 상징인 사탕 교환 이



벤트를 이달 27일까지 진행한다. '사탕 획득 미션'을 통해 하루 최대 100개의 사탕을 획득할 수 있으며, 사탕 교환소에서 원하는 게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드래곤 블레이즈는 성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까지 매일 로그인하면 'Green Day Box'를 받게 된다. Green Day Box를 통해 루비, 혼 뿔기권, 초월의 징수, 골드, 캐릭터 강화 물약 등을 획득할 수 있다.

피싱마스터는 14일부터 18일까지 화이트데이 사탕 물고기 잡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한 이벤트 물고기를 낚으면 사탕 박스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게임빌 관계자는 "화이트데이와 성 패트릭 데이를 맞아 푸짐한 선물을 마련해 글로벌 유저 성원에 보답하고, 자사 히트작들로 전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인기 불어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정읍시립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 23일까지 유물 매도 신청 받아

정읍시립박물관은 2019년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은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14일부터 23일까지 공고를 통해 '유물 매도 신청'을 받는다. 구입 대상 유물은 정읍의 역사와 관련 있는 자료와 인물, 고문서, 독립운동, 민족종교 등이다.

특히,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정읍의 독립운동과 정읍 민족종교 관련 유물 구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도 신청 대상은 소장 경위 입증 가능한 유물을 보유한 개인 소장자(중증 포함)와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이다. 소장 경위가 불확실한 유물은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물 구입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정읍시 고시·공고 또는 시립박물관 홈페이지와 전화(063-539-679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4월 2일에서 4월 5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마감일 소인부 인정)할 수 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앞으로도 정읍 역사와 관련된 유물을 기증, 기탁, 구입의 방식으로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거리의 혼란과 현기증을 새로운 감수성으로

시인 기형도 30주기 기념... '길 위에서 증얼거리다' 출간

'나무의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득 하였다/ 은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풀층계 위에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 때마다 충성이 울렸다/ 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 시를 쓰면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존경하던 교수가 있었으나 그 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졸음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대학 시절' 전문)

시인 기형도(1960~1989) 30주기를 기념, 문학과지성사가 시집집 '길 위에서 증얼거리다'와 현정시집 '어느 푸른 저녁'를 펴냈다.

'길 위에서 증얼거리다'는 시인이 생전에 '정거장에서의 충고'와 함께 첫 시집의 제목으로 염두에 둔 것이다. 그의 첫 시집이자 유고 시집인 '입 속의 검은 잎'(1989)에 실린 시들과 미발표시 97편을 묶었다. '거리의 상상력'을 주제로 목차

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사 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웠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담장을 박살 내곤 했다//그러나 애들이,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점문가' 중)

이광호 문학평론가는 "기형도는 거리의 혼란과 현기증을 새로운 감수성의 원천으로 만들었다"고 평했다. "거리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될 수 없게 하고 그 장소의 정체를 알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장소 없음'의 공간이지만, 장소 없음은 역설적인 희망의 사건이었다. 거리는 현대적 불안의 공간이며, 무한한 잠재성의 시간이었다. 기형도의 거리는 시인의 사회적 경험과 미적 감각이 동시에 관여하는 현대적인 지점이다. 거리는 동시대의 사회적 감각을 일깨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리에서 쓰는 자로서의 새로운 심미적 개인의 얼굴을 탄생시켰다" 180쪽, 1만 3000원

/뉴시스

일본 천주교 100년만의 반성... "6·25와 분단은 일제침략 탓"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과 관련, 일본 천주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성이 나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일본가톨릭 정의와평화회의회장 가쓰야 다이지 주교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이렇게 인정했다.

"올해 3월1일은 우리 일본 천주교회에도 역사를 적시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인들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다시 물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가쓰야 주교는 "일본 천주교회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천주교회에 크게 관여했고,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근원에는 메이저인 신 이후 일본의 침략정책이라는 역사가 있다"고도 했다.

가쓰야 주교는 한·일 천주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형제자매'로서 과거 일본의 가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문화·종교 등 시민을 통한 다양한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100년 전 조선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응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에 대한 비난과 단



죄가 아니라, 차별하고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은 식민주의의 극복이라는 더욱 숭고한 인류 보편적인 이상 실현의 호소이며 초대라고 봤다.

가쓰야 주교는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100년 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우리 일본의 천주교 신자들도 한국 천주교회와 함께 이 '선언서'가 지향하는 지평을 바라보며, 국가보다도 인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자"고 청했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